

출입제한 '금천·송파구 배수지' 시민 품으로... 공원 탈바꿈

서울시, 독산·오금배수지 개방
그간 103개소 중 46곳 재정비
장애 데크순환 산책로 등 설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금천구와 송파구 배수지 2곳이 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에게 개방됐다.

서울시는 6일 관악산근린공원 내 독산배수지 상부를 재조성하고, 오금공원 내 오금배수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배수지는 수도물 저장탱크로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 보안시설이었으나 배수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반영돼 시민 여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배수지 103개소 중 46곳 상부를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올해는 금천구와 송파구 두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한다.



송파구 오금공원 내 오금배수지 상부 공원

/서울시

금천구 독산배수지 상부 공원(금천구 독산동 산197 일대)은 1982년 조성돼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공간이었으나, 공원시설 노후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돼 왔다. 시는 총 10억원을 들여 금천구 시내가 한눈에 들어다보이는 금천정 주변에 전망데크와 휴게·운동 시설을 설치해

일대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이 발생했던 테니스장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공원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송파구 오금공원 배수지(송파구 오금동 51 일대)는 33년만에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됐다. 1990년 오금공원 개원 이후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제한돼 왔다.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은 2019년부터 3년간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1만 m² 규모로 조성됐다. 510m 규모의 무장애 데크순환 산책로, 하늘정원(휴게쉼터 및 잔디밭), 빗물 활용 정원(레인가든) 및 안개형 분사기(쿨링포그) 분수 등이 설치됐다.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보여 서울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의 여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녹색여가공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의 공원이 시민들의 삶에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미리 보는 도시건축비엔날레... 오늘 사전행사

프리비엔날레서 기본계획 등 선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상 첫 공개

내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모색할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앞두고 올해 사전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송현동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사전 프로그램인 프리비엔날레를 7일 14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비엔날레는 내년 열리는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과 함께 내년도 주제인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에 대해 미리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부 '글로벌시티, 서울'에서는 주제 발표, 전시 소개, 비엔날레상 선포식,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식이 이뤄지고 2부 '미래 서울 100년'에서는 시민 인터뷰 상영과 함께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진행은 손미나 전 KBS 아나운서가 맡는다.

서울시는 이날 새롭게 제정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상'을 처음 공개한다. 이 상은 도시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이날 프리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층 갤러리에서 '미리 보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비엔날레 상' 전시가 열린다. 전시에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제, 장소, 전시, 처음 제정된 비엔날레 상과 의의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기간 중에는 한국사 감사 최태성, 김태호 PD,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내·외국인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서울공예박물관, 韓 백자의 면모 집중 조명

특별기획전시 마련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백자의 다양한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시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를 전시1동 1층 기획전시실에서 8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서울공예박물관이 2020~2021년 연구 개발한 이동형 백자 기록보관(아카이브) 상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백자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재료의 발견'에서는 다양한 자연광물을 백자의 태토·유약·안료로 가공하고, 유약·안료들을 태토에 발라 구운 후 나타나는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전시한다.

'백색의 가능성'에서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제작한 이동형 아카이브 상자인 '백자공예상자'를 중심으로 조선-근대기 한국 백자의 주요 장식기법과 그 대표작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

'백색의 어울림'에서는 백자의 역사적 기술 발전을 토대로 재료와 기법을 더 실험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현대 작가 25인의 백자 작품과 회화 작품이 소개된다.

한편, 서울공예박물관은 이번 기획전시와 연계해 오는 14일 백자 사진의 대가인 구본창 작가와의 대화 '공예로 보는 시대감각: 백자의 숨결을 사진에 담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2022 서울기록페어' 10일 개최

서울기록원은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2 서울기록페어: 당신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를 11월 10일 ~ 1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온라인 행사로 시작해 올해 3회를 맞는 서울기록페어는 올해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의 기록 활동과 기록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강연과 네트워크 세션, 체험 프로그램, 전시 연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 다양한 기록 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첫날인 10일에는 설문원 부산대 교수, 주진오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영희 연세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와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일에는 심수림 우리마을 기록단 대표, 양두환

간판사진기록가, 홍지연 자양5동 활동가 등 시민기록활동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기록 활동을 소개한다. 12일에는 박현민 우주복스&우주웍스 대표,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이지현 숲과나무 사무처장 등이 출연해 환경 관련 기록 활동을 소개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수선 프로그램'과 '개포공공아파트 종이모형 제작 워크숍'이 열리고 현재 서울기록원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사진관 옆 현상소'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3 | 해짐 / 17:28

11월 7일 (월)
음력 / 10월 14일

수도권 날씨
7 ~ 1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4/14, 동두천 4/15, 가평 2/14, 파주 4/14, 서울 7/15, 양평 4/14, 인천 9/15, 수원 7/15, 용인 7/15, 평택 3/16, 백령도 11/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국민 불안감 해소" /사진 뉴시스
- ▲용산구 CCTV 관제센터, 행안부에 현상상황 보고 안 해

- ▲"오염물질 저감"...환경부·지자체·시멘트사 협의회 개최
- ▲대설·한파에 국민피해·불편 없게...정부·지자체 합동점검



- ▲9월까지 산재사망 510명... '중대재해법'에도 되레 증가 /사진 뉴시스
- ▲'기후변화 피해' 개도국 실질지원 나올까...COP27 개최